



머리는 素髮이며 頭頂이 肉髻形으로 높고連珠 장식을 둘러 簡單坐한 寶冠을 쓰고있다. 앞가슴에는 華麗한 瓔珞文裝飾을 드리우고 왼쪽 어깨에서 흘러나린 天衣는 팔뚝을 덮고 아래로 드리워져서 地面에까지 이르고있

다. 또 바른쪽 天衣자락은 어깨에서 시작해서 앞가슴을 거쳐 바른쪽 무릎위의 손목을 덮고 台座위에 까지 이르고 있다. 手印은 바른손을 무릎위에서 內掌하고 아래로 드리웠으며 왼손은 땅을 짚어서 安息하는 姿勢를 보이고 있는데 이 觀音像의 台座 後邊에는

京安里二處人發 → 觀音一尊化主李

助緣僧故城女人 馬海朝登門陳氏

以下 數十人의 人名이 刻銘되어있다. 이 佛像의 年代는 이 銘文으로 는 밝힐 수 없으나 造像樣式上 明清之間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듯도 하며 現在 仁川博物館에서는 明代 佛像으로 說明되어있는데 그 理由의 하나로는 銘文의 字體가 明體로 볼 수 있다는 데에 있는듯 하다.

## 京畿道 華城郡 日旺面 出土의 百濟土器

尹 武 炳

昨年 九月 京畿道 華城郡 日旺面 三里에서 百濟土器 一三點이 發見되었다. 出土地는 三里에서 二里에 넘어가는 낮은 고개 못미처 길 오른쪽 傾斜地에서 진흙을 採取하다가 發見되었다 한다. 그 場所를 알기 쉽게

말하면 京釜線 富谷驛에서 東쪽으로 約五、六百米 떨어진 地點에 該當한다.

먼저 發見遺物에 對하여 簡單히 記錄하였다.

一、항아리 五個、높이 五九cm — 一九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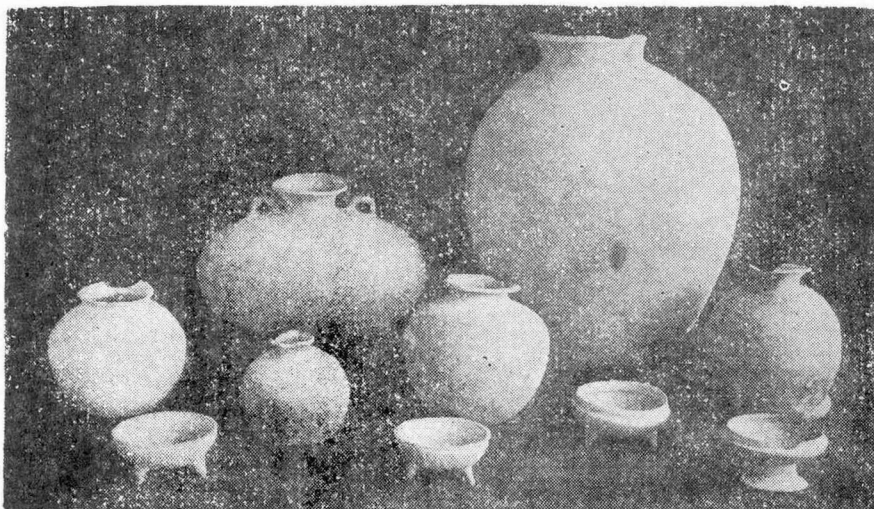
큰 것 작은 것 합쳐서 다섯個가 있었다. 器型에는 조금씩 差異가 있으나 色調는 비슷한 黑色이며 質도 比較的 단단하였다. 바닥은 등

글게(圓底) 생겼는데 가운데는 땅에 닿는 一部를 다시 平坦하게 만든 것도 있었다. 대개가 肩部 以下에 纏席文 같은 文의를 남기고 있으나 格子打型文으로 된 것도 하나 있었다. 이 土器만은 다시 그 肩部 上面에 두 줄의 陰刻 圓圈文을 둘러고 그 사이에 汗珠의 波狀文을 새기고 있다. 이 單線波文은 百濟土器에서 罕혹 볼 수 있는 것이다.

二、병 一個、

높이 一五cm

바닥을 넓적한 平底로 만들었다. 表面은 黑灰色이지만 그 바닥



百 濟 土 器

만은 褐色이다. 胴部 以下에 格子打型文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口緣部 周圍는 돌아가면서 조금씩 조개져 있으나 원래부터 인 것 같다.

三、三脚杯 五個、높이 六cm 前後

이 三脚杯는 百濟系統의 土器에 特有한 것이다. 보통 흔히들 뚜껑을 가진 蓋杯의 形式으로 만들고 있으나 이 곳에는 뚜껑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중 네 個는 口緣部의 形態로 미루어 보아 원래부터 無蓋로 만든 것이 分明하였다. 나머지 하나는 有蓋式인 것 같으나 蓋를 잃고 있다. 全部 黑灰色、質은 제일 단단하게 구워져 있었다. 有蓋式의 器身에는 黑色釉가 한방울 떨어지지 쓰워진 것처럼 두껍게 붙어 있었다.

四、臺가 달린 杯 一個、높이 八cm

낮은 臺가 달려 있으나 그 以外에는 아무 裝飾도 없다. 有蓋式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蓋를 잃고 있다. 三國時代 新羅古墳에서 흔히 出土되는 高杯가 退化한 것같은 形式이다.

五、장군 一個、높이 二八cm

黑灰色 全面에 繩蓆文이 있다. 아가리 양쪽에 끈을 달 꼭지 두 個를 만들어 붙였다. 양 끝이 모두 동글게 만들어져 있다.

發見者의 말에 依하면 이들은 땅 속에 별다른 構造나 施設도 없이 한 군데에 파묻혀 있었다고 한다. 筆者도 實地로 現場을 調査하고 좀 파보기도 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痕跡도 찾지 못하였다. 다만 現地表에서 約一·七〇m의 깊이에 達하는 地山 一部에 平面이 橢圓形에 가까운 구멍을 파 놓은 자리만 確認되었을 뿐이다. 이 구멍은 長徑을 南北에 두었는데 그 길이는 約一·二〇m、이에 對하여 東西의 폭은 제일 넓은 데서 八〇cm 前後가 되었다. 단단한 地山에 파고 들어간 깊이는 四〇cm가량 되나 보였다. 바닥은 판판하게 만들었는데 發見者들의 이야기로는 이 바닥 全面을 차지해서 土器가 適當히 配列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順序는 똑똑치 않았으나 한복판에 제일 큰 항아리를 얹어 놓고 있었다고 한다.

以上 이들 土器의 出土狀況에는 未審한 點도 적지 않으나 아무튼 한 군데서 發見된 一括遺物인 만큼 그 資料로서의 價値는 적지 않으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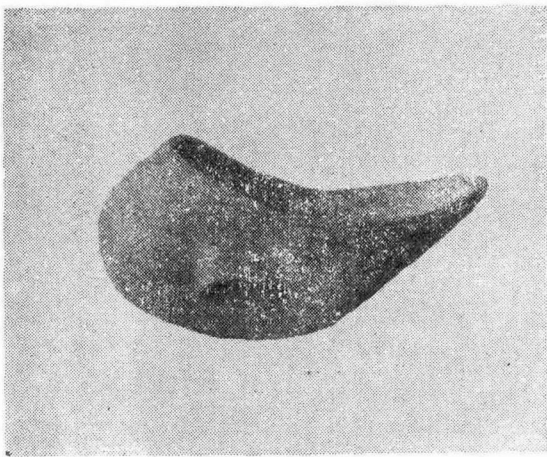
생각한다. 다만 出土된 遺蹟의 性質이 너무나 特殊해서 異常하게 느껴 지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現地에서 見聞한 바를 그대로 記錄하고 後考를 기다리기로 하겠다.

軍守里 出土 百濟土器

洪 思 俊

이 陶器는 一九五九年 三月 五日 扶餘邑에서 머지않은 軍守里에서 出土되었으며 扶餘水利組合 水路開鑿을 하다가 偶然히 人夫의 손으로 採集한 것이며 筆者가 扶餘博物館으로 옮겨온 것이다.

그릇의 바닥은 동글고 一端은 圓形이지만 他端은 뾰족하게 되었으며 위에서 보면 개구리가 입을 크게 벌린 것처럼 되어 있다. 容器의 形態로 보아 液體를 담아 他器에 따르는데 使用된 것 같기도 하나 뾰족한 流部가若干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病院에서 使用하는 따위의 便器처럼 使用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物件 自體의 製作한



軍守里出土 百濟土器